

‘까닭 없는 하나님 경외’에 대한 사탄의 질문과 욥의 응답: 욥기 1:9ff와 19:6-20, 25-27의 비교를 중심으로*

구자용(주안대학원대)

1. 들어가는 말

하나님을 경외함에 까닭이 필요한가? 하나님 경외는 그 자체로 고상하고 당연한 신앙인의 자세일 뿐이지 거기에 무슨 까닭이 결부될 수 있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사탄이 욥에 관해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은 이 당연한 사실에 상당한 과장을 일으킨다. 그 질문을 통해 사탄은 하나님이 그에게 자랑삼아 내놓은 욥의 경건을 ‘까닭’과 연관시킨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1:9) 그리고 그 ‘까닭’을 ‘세 겹의 둘러쌈’이란 독특한 모티브로 구체화한다.¹ 그것은 ‘욥 자신’과 ‘그의 집’과 ‘그가

* 이 논문은 주안대학원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된 논문임을 밝혀 둠.

1 안근조는 욥에게 닥칠 세 종류의 시험을 이미 이 개념에서 파악하고 있다. 안근조, 『하나님의 지혜 초청과 욥의 깨달음: 욥기의 지혜코드』 (용인: 킹덤북스, 2012), 29-30; 안근조, 『지혜말씀으로 읽는 욥기』 (서울: 감은사, 2020), 47-50.

가진 모든 것, 즉 소유물'에 대한 '하나님의 둘러싸 보호함'(1:10a)이다. 그러므로 이 '둘러싸 보호함'이 거두어진다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 경외를 포기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사탄의 이 예측은 욥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대의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탄의 이 질문과 예측은 욥의 하나님 경외가 진정 까닭 없는 것으로, 즉, 그의 복뿐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도 입증되기 전에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독자들은 욥의 대답을 기다리게 되고, 운문부에서 길게 펼쳐지는 욥과 친구들의 논쟁 및 욥의 독백에서 그의 태도를 주시하게 된다. 그런데 왜 욥이 이것을 입증해야만 하는가? 그는 정작 하늘에서의 이 논쟁에 끼어들 수조차 없었는데 말이다. 그리고 그의 대답은 도대체 어떻게 하늘에 전달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은 욥기서 자체에 설정된 특별한 구조와 독자 중심의 해석이란 틀 속에서 해소될 수 있다.

욥기는 오랫동안 산문부와 운문부 사이에 신학 사상과 문장 형식이 서로 다른 것으로 구분되고, 각각 다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² 그러나 사탄이 등장하는 욥기의 산문부가 포로기 이후라는 일 것이란 이유만으로 욥기 해석에 중요하지 않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³ 특히 슈미트(Konrad Schmid)는 산문부로 된 서문을 욥기의 운문부와 따로 떼어내 하늘에서 펼쳐지는 단순한 동화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것이 오히려 욥기와 관련하여 매우

2 Raik Heckl, *Hiob – vom Gottesfürchtigen zum Repräsentanten Israels: Studien zur Buchwerdung des Hiobbuches und zu seinen Quellen* (FAT 70; Tübingen: Mohr Siebeck, 2010), 1-3; 구자용, ““우리가 항상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데, 악한 것을 또한 받지 못하겠느냐?”(욥 2:10): 욥기가 말하는 신정론에 대한 성서 신학적 고찰,” 『구약논단』 74집 (2019년 12월), 191-220.

3 Wolf-Dieter Syring, *Hiob und sein Anwalt: Die Prosatexte des Hiobbuches und ihre Rolle in seiner Redaktions- und Rezeptionsgeschichte* (BZAW 336;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4), 32, 특히 각주 109를 참조하라.

중요한 신학적 서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⁴ 즉, 욥기 연구 경향은 산문부와 운문부 사이에 긴밀한 연결 고리가 있음을 입증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기도 한다는 것이다.⁵

이 논문은 이러한 연구 경향에 발맞춰 산문부와 운문부의 연결을 두 본문, 즉 1장 9절 이하와 19장 6-20, 25-27절을 통해 입증하고자 한다. 또한 위의 두 본문 사이의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2장 4b-5절, 3장 23절 그리고 10장 11절을 텍스트 상호성의 기초 위에서 파악되는 특정 모티브의 연결이란 관점에서 주목하여 관찰하고, 그것을 통해 형성되는 특정 구조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⁶ 이 작업은 다분히 본문 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수용미학적 관점에서 필수적인 독자의 참여와 함께 이루어진다.⁷ 그 참여로 두 본문이 서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

4 Konrad Schmid, *Hiob als biblisches und antikes Buch: Historische und intellektuelle Kontexte seiner Theologie* (Stuttgarter Bibelstudien 219;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2010), 21.

5 Heckl, *Hiob – vom Gottesfürchtigen zum Repräsentanten Israels*, 4; 강철구, “욥의 경건과 축복의 관계(행위회복의 관계)에 대한 논쟁,” 『성경과 신학』 93권 (2020년 4월), 3; 특히 하경택, “욥기 연구사: 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58집 (2015년 12월), 269-270; 271-272를 참고하라. 특히 엡센(A. Jepsen)은 욥기를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구성과 형식 외에도 책의 처음부터 내용적 진술에 유의해야 하며, 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전체의 맥락에 적용하여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해, Alfred Jepsen, *Das Buch Hiob und seine Deutung* (Arbeiten zur Theologie 1. Reihe Heft 14; Stuttgart: Calwer Verlag, 1963), 8-9를 참조하라. 특히 1995년에 발표된 오르쇼트(J. van Oorschot)의 욥기 연구의 경향을 정리한 논문은 이미 그 시기에 욥기 연구의 접근 방식 자체가 매우 다양화되었고, 심지어는 신문에비평적 접근 방법부터 영향사적인 면까지도 고려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한 저자 가설’과 ‘산문부 및 운문부 뒤에 숨어있는 한 창작의 손길’에 대해서, Jan van Oorschot, “Tendenzen der Hiobforschung”, *Theologische Rundschau* 60 (1995), 355-356, 374를 참조하라.

6 헤클(Raik Heckl) 자신이 사용하는 욥기 분석 방법론은 크게 보아 ‘텍스트 상호성’(Intertextualität)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이것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와 본문 적용을 위해 좀 더 세분화한 주네트(G rard Genette)의 개념까지 확장하여 사용한다. 이에 관해, Heckl, *Hiob – vom Gottesf rchtigen zum Repr sentanten Israels*, 12-16을 참조하라.

7 수용미학적 관점은 독자 중심의 해석을 말한다. 이에 관해, 구자용, 『다윗의 왕위 계승사: 전도서를 드라마화한 삶의 이야기』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2), 43-47을 참고하라.

고 그 연결을 통해서 형성되는 구성 상의 구조가 질문과 응답의 구조임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⁸

2. 욱 1:9b-11

욱기 1장의 천상 회의 장면에서 사탄은 정직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 욱을 사랑하는 야웨께 다음과 같이 반문한다.

- 9b יְהוָה אֱלֹהִים יְרֵא אֵיבֹב יְרֵא אֵיבֹב (하힌남 야레 이욱 엘로힘/까닭 없이 욱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⁹
- 10a הֲלֹא-אַתָּה שְׂכַתְּ בְּעָרוֹ וּבְעַד-בֵּיתוֹ וּבְעַד כָּל-אֲשֶׁר-לוֹ מִסָּבִיב (할로-아타 싸크타 바아도 우베아드-베토 우베아드-콜-아쉐르-로 밋싸비브/당신[하나님]이 그와 그의 집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둘러싸 보호하셨던 것이 아닙니까?)
- 10b מֵעֵשָׂה יָדָיו בְּרַכָּתָּהּ וּמְקַנְהוּ פְּרִיץ בְּאַרְצָא (마아셰 야다브 베라크타 우미케네후 파라츠 바아레츠/그의 손이 하는 일에 당신[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의 소유물이 땅에서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 11a וְאוֹלָם שְׁלַח-נָא יָדְךָ וְנַע בְּכָל-אֲשֶׁר-לוֹ (베올람 쉘라호-나 야드카 베가아 베콜-아쉐르-로/그러나 당신의 손을 뻗어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치십시오.)
- 11b אִם-לֹא עַל-פְּנֵיךָ יְבָרְכֶךָ (임-로 알-파네카 예바라케카/확실히 당신 [하나님]을 향해 저주할 것입니다.)

8 여기서 말하는 구성 상의 구조란 욱기 형성의 편집적 관점에서의 구성(composition)을 말한다.

9 비테(M. Witte)는 하나님의 말과는 달리 사탄이 יְרֵא(야라/경외하다)를 동사의 완료형으로 쓴 것에서 마치 욱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을 것이란 인상을 준다고 보았다. 이에 관해, Markus Witte, *Das Buch Hiob* (ATD 13;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21), 92를 참조하라.

9b절의 사탄의 이 수사적 질문은 음흉하다.¹⁰ 이 질문은 단순히 욕의 경건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발적 질문이다.¹¹ 만일 하나님 경외가 단지 행위-회복-관계 사상의 기계론에 갇혀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복과 관련해서만 작동하는 제한적인 개념으로 전락해 버린다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자유와 주권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만다.¹² 앤더슨(F. I. Andersen)은 사탄의 질문에서 그가 의심하는 두 가지 본질적 요소를 각각 욕의 “사심 없는 경건”(disinterested piety)과 하나님의 “사심 없는 관대함”(disinterested generosity)으로 파악한다. 사탄의 판단에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다.¹³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심 없는 관대함”은 협의적 개념일 뿐이고, 그보다 핵심적인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적 자유와 주권이 확보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이다. 비테(M. Witte)는 이 점을 잘 간파하고, 사탄의 질문이 “이중적 시험에 관한 것”(von einem doppelten Test)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사탄의 질문으로 인해 표면적으로는 욕이 검증을 받는 것으

10 포어러(Fohrer)는 이것을 ‘냉소적 질문’(spöttische Frage)으로 보기도 한다. Georg Fohrer, *Das Buch Hiob* (KAT XVI;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 1963), 85 참조. 그에 반해 클라인스(Clines)는 사탄이 여기서 ‘성인 시성식의 반대자’(advocatus diaboli)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 그가 의도하는 바는 단순한 고발이 아니며, 향후 욕에 대한 어떤 의문의 여지도 남지 않도록 그의 경건을 날카롭게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David J. A. Clines, *Job 1-20* (WBC 17; Dallas, Texas: Word Books, 1989), 25 참조. 클라인스의 견해가 매우 독특하고 타당하지만, 사탄의 질문에 내포된 도발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11 특히 그로스(H. Groß)는 인간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에 대해 그 권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에 관해, Heinrich Groß, *Ijob* (NEB 13; Würzburg: Echter Verlag, 1986), 14를 참조하라. 또한 Rüdiger Lux, *Hiob: Im Räderwerk des Bösen* (Biblische Gestalten 25;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12), 89를 참조하라.

12 Fohrer, *Das Buch Hiob*, 85 참조. 이스라엘 지혜자들이 이 기계론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뤼디거 룩스 저/구자용 역, 『이스라엘의 지혜: 언어의 대가, 백성의 지도자, 삶의 원천』 (고양: 한국학술정보[주], 2012), 120-121을 참조하라.

13 Francis I. Andersen, *Job* (TOTC 14; Nottingham: Inter-Varsity Press, 1976), 89. 한편 두 핵심 요소를 “하나님의 영광과 욕의 신실”(Gottes Ehre und Ijobs Treue)로 파악하는 그로스(H. Groß)의 견해도 참고하라. Heinrich Groß, *Ijob* (NEB 13; Würzburg: Echter Verlag, 1986), 15.

로 보이나, 실상 욥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검증받게 된다는 것이다.¹⁴

이와 관련하여 사탄의 수사적 질문이 만드는 또 한 가지의 특별한 작용을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에게도 이 의심을 해소해야만 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욥 사이에 굳게 형성된 신뢰에 생긴 흠집은 그것이 욥에 대한 검증을 통해 사라지기 전까지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¹⁵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욥 사이의 절대적 신뢰 관계는 이제 매우 혹독한 시험대에 놓이게 되었다.

10a절에서 사탄은 특별히 부정어를 포함한 반문 형식의 수사적 질문¹⁶을 던지며 이전 질문에 대해 논증하고, 그렇다는 대답을 강요한다. 여기서 대명사 T'a:(아타/당신)¹⁷는 마치 책임을 추궁하는 듯 들리며, 욥의 까닭 있는 경건이 욥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인상을 준다.¹⁸ 특히 세 번 연속 등장하는 전치사 **בְּיָדְךָ**(바야드) 및 맨 끝의 **בְּיָדְךָ**(밧사비브)와 함께 사용된 **יְשׁוּבְךָ**(수크) 동사는 하나님의 보호 행동으로써의 ‘세 겹으로 둘러쌈’으로 해석된다. 즉, 욥 자신 및 그의 집 그리고 그의 소유물을 ‘둘러싸 보호함’이다. 이 하나님의 보호 행동은

14 Markus Witte, *Das Buch Hiob*, 92-93. 또한 뤼디거 룩스 저/구자용 역, 『이스라엘의 지혜: 언어의 대가, 백성의 지도자, 삶의 원천』, 169-170을 참조하라.

15 이 흠집은 검증이 필요하지 않은 당연한 사실을 다시 검증해야만 하는 문제로 만들어 버린 것을 의미함.

16 이와 유사한 형식의 질문으로 왕상 1:11aβγ, 13aα₂₃βγ를 들 수 있다. 절의 상세 구분에 관해서는 알렉산더 아킬레스 피셔 저/김정훈, 배희숙, 차준희, 하경택 역, 『구약성서 본문: 역사와 본문비평: 에른스트 뷔르트바인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입문서에 대한 새로운 개정』(서울: (재)대한성서공회, 2020), 41-42를 참조하라.

17 Fohrer, *Das Buch Hiob*, 85.

18 앤더슨은 이 대명사를 일종의 고발로 이해하며, 헤쎄는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탄의 비난 가득한 어조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관해 각각 Andersen, *Job*, 89와 Franz Hesse, *Hiob* (ZBK 14;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78), 30을 참조하라.

올타리¹⁹나 혹은 가시덤불²⁰로 둘러싸므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그것이 욥의 집이나 그의 소유물에 대한 보호로는 이해가 되나, 욥 자신에 대한 보호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2장 4b, 5절과 관련하여 더욱 그러하다. 이에 관해 아래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11a절에서 사탄은 이제 욥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치라고 제안한다. 하나님이 손을 댄, 손으로 침 혹은 손을 뺀음의 행위는 항상 이중적 의미를 지니는데, 그것은 욥기에서도 관찰된다.²¹ 특히 여기서 사용되는 멸하심의 의미가 특히 19장 21절에서 욥 자신에 의해 같은 의미로 다시 사용된다는 점은 사탄의 제안이 그대로 시행되었음을 의미한다. 비록 하나님은 사탄의 제안을 수용하여 욥의 모든 소유물과 그의 집, 즉 그의 자녀들을 사탄의 손에 내주지만, 거기에 명백한 한계가 설정되어 욥 자신에는 사탄의 손을 뺀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시험의 강도를 높이며 세 겹으로 둘러싸 보호하는 중에서 두 개를 걷어내는 것만을 단순히 서술하지 않고, 남은 한 겹의 보호인 욥 자신의 몸에 대한 하나님과 사탄의 두 번째 논쟁을 예고하는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욥은 고난을 겪는다. 사탄은 11b절에서 두 겹의 둘러싸의 보호막이 찢겨 나감을 통해 드러날 욥의 태도를 예상한다. 그 예상은 2장 5b절에서 욥을 겨냥하여 다시 반복된다.

19 Friedrich Horst, *Hiob* (BK XVI/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8), 15. 하벨(N. C. Habel)은 여기서 이미 이것이 “욥의 고발에 대한 아이러니적 예상”(ironic anticipation of Job’s accusation)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지적한다. 이에 관해, Norman C. Habel, *The Book of Job* (The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5), 90을 참조하라.

20 호 2:6[히, 2:8]; Fohrer, *Das Buch Hiob*, 85; Marvin H. Pope, *Job*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65), 12; John E. Hartley, *The Book of Job*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88), 71, 73을 참조하라.

21 고치심의 의미로 5:18에서 그리고 멸하심의 의미로 6:9; 19:21; 30:21에 언급된다. 이에 관해, Witte, *Das Buch Hiob*, 92, Anm. 81.을 참조하라.

3. 2:4b, 5

‘둘러싸 보호함’의 모티브는 2장 4b절의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에 다시 언급된다. 거기서 사탄이 언급하는 사람의 네페쉬에 대한 그림은 5절의 뼈와 살에 대한 그림과 함께 19장에 더욱 확연하게 연결된다.

4b α_1 עֹר בְּעַד־עֹר (오르 배아드-오르/가죽에 가죽)

4b $\alpha_2\beta$ וְכָל אֲשֶׁר לְאִישׁ יִתֵּן בְּעַד נַפְשׁוֹ (베콜 아셰르 라이쉬 일텐 베아드 나프쇼/[그래서] 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을 그[사람]은 자신의 목숨²²을 위해 [기꺼이] 내놓습니다.)

5a אֹלָם שְׁלַח־נָא יָדְךָ וְנַע אֶל־עַצְמוֹ וְאֶל־בְּשָׂרוֹ (올람 셸라흐-나 야드카 베가야 엘-아츠모 베엘-베싸로/그러나 당신의 손을 뻗어 그의 뼈와 살을 치십시오.)

5b אִם־לֹא אֶל־פְּנֵיךָ יִבְרָכְךָ (임-로 엘-파네카 예바라케카/확실히 당신[하나님]을 향해 저주할 것입니다.)

사탄은 4b α_1 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속담을 인용하고 있다. ‘가죽에 가죽’은 오랫동안 물물교환에 관한 속담으로 해석되었다.²³ 이것은 יָתֵן(일텐)에 전치사 בְּעַד(배아드)가 연결되고 있고, 그 전치사가 ‘~을 위해’란 의미를 지니므로, 선행하는 동일 전치사 역시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다.²⁴ 그래서 4b $\alpha\beta$ 절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사람이 [동물] 가죽을 동일 가치의 [동물] 가죽과 물

22 נַפְשׁוֹ(네페쉬)는 여기서 육체적 생명을 의미함. H. Seebass, “נַפְשׁוֹ nappes̄,” *ThWAT* (1986), 546-547과 Witte, *Das Buch Hiob*, 98 참조.

23 Fohrer, *Das Buch Hiob*, 95; Horst, *Hiob*, 24-25; Hesse, *Hiob*, 38; Hartley, *The Book of Job*, 80-81. 한편 그로스 는 이 속담을 탈리온 법에 대한 표현, 즉 동등화하는 정의의 표현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이에 관해, Groß, *Ijob*, 17을 참조하라.

24 Andersen, *Job*, 95 참조.

물교환하듯이, 그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다.” 그러나 4b $\alpha\beta$ 절은 일상적 삶 속에서 사람의 생명 보존에 관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사탄의 이 말이 1장 10a절의 세 겹의 둘러싸 보호함과 연관된다면 그리고 그 세 겹의 둘러싸 보호함에서 이제 בָּעֹר (바아도)만 남았다면 더욱 그러하다. 앤더슨은 옴의 부유함이 그의 피부 위를 덮고 있는 가죽옷 또는 방패였다고 보기도 한다.²⁵ 옴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장치 중 이제 남은 것은 그의 피부 말고 무엇이 있겠는가?²⁶ בָּעֹר (바아드)를 ‘~ 위에’로 본다면 עֹר־בָּעֹר עֹר (오르 베아드-오르)는 ‘[사람의] 피부 위에 [동물] 가죽’을 덧입는 것, 즉 사람이 자신을 둘러싸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⁷ 바로 이 생각을 기초로 사탄은 옴을 다시 한번 시험대에 세우되, 그에게서 하나님이 옴을 감싸는 최종적 보호막, 즉 피부를 걷어내길 원한다.²⁸

사탄의 판단에 의하면, 이 두 번째의 혹독한 시험은 옴의 경건을 확인하기에 결정적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지키고자 할 만큼 강한 자기보호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²⁹ 그러나 2장 4절에 사탄이 말하는 사람의 네폐쉬에 대한 집착과 그림은 19장의 옴의 모습에서 극적으로 해부되며, 거기서 과연 사람이 생명의 목전에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질 것인가가 진지

25 윗글.

26 첫 번째 עֹר 는 동물 가죽으로 만든 옷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피부, 즉 옴의 피부로 볼 수 있다. 앤더슨은 이 두 개의 עֹר 를 피부 중에서도 표피와 진피로 구분하여 보기도 하지만, 이것은 10:11과 관련하여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에 관해, Andersen, *Job*, 95를 참조하라.

27 이 해석은 이미 안근조가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안근조, 『하나님의 지혜 초청과 옴의 깨달음: 옴기의 지혜코드』, 29; 『지혜말씀으로 읽는 옴기』, 46-50을 참조하라.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은 주장에 관해, Fohrer, *Das Buch Hiob*, 95 참조하라.

28 Lux, *Hiob: Im Räderwerk des Bösen*, 115 참조.

29 Groß, *Ijob*, 17, Pope, *Job*, 20 참조.

하게 질문된다. 2장 5a절의 표현은 위의 해석에 걸맞은 죽음의 위협과 같다.³⁰ 하나님의 손을 뺀어 그의 뼈와 살을 치라는 것은 사람의 피부를 찢거나 벗겨내야만 가능한 것이며, 그러므로 이것은 10장 11절을 거쳐 19장 26절로 연결되고 있음이 명백하다.³¹ 사람을 겉으로 보호하는 창조주의 선물로서의 피부에 대한 그림이 10장 11절에 나타나기 때문이다.³² 2장 5b절의 사탄의 예상은 1장 11b절로부터 반복되는 것인데, 19장 26f절에서 그것이 죽음을 맞닥뜨리고 있는 고난 속 인간이 가질 유일하고 결정적인 태도일 뿐인지 아닌지가 검증될 것이다.

4. 산문부에 대한 중간 결론

욥기 서문에서의 사탄의 두 수사적 질문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도발로 이해할 수 있다. 사탄은 그 질문에 확신 있게 대답하고 있다. 사탄은 나름대로 그럴만한 논리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 논리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단지 복만을 통한, 즉 긍정적 의미로 서술된 하나님의 세 겹으로 둘러쌈을 통한 욥의 경건; 고난을 통해, 즉 두 겹의 둘러쌈을 벗겨냄을 통해, 그것을 검증할 필요성; [검증과 변함 없는] 욥의 경건 확인; 그러나 여전히 남겨진 복, 즉, 긍정적 의미로 서술된 하나님의 최종적 둘러쌈을 통한 욥의 경건; 재차 고난을 통해, 즉, (그의 피부를) 벗겨냄을 통해, 그것을 재차 검증할 필요성; 사탄의 확신과 예상: 최종적으로 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경건도 없음. 사탄의 관점에서 볼

30 Pope, *Job*, 21 참조.

31 그 외에도 7:5; 30:30을 참조하라.

32 Witte, *Das Buch Hiob*, 98-99 참조.

때, 인간의 하나님 경외는 고난의 경험을 통해 직접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질문: 서문] [사탄의 하나님에 대한 도발]

1:9b **הַחֲנָם יֵרָא אִיּוֹב אֱלֹהִים**

사탄의 첫 번째 수사적 질문: 경건 ← 복

1:10a **הֲלֹא-אֵת שְׁכֶתְךָ בְּעָרוֹ וּבְעַד-בֵּיתוֹ וּבְעַד כָּל-אֲשֶׁר-לוֹ מִסְבִּיב**
 둘러쌌 1 둘러쌌 2 둘러쌌 3

사탄의 두 번째 수사적 질문: 경건 ← 복(3×둘러쌌/공정)

1:11a **וְאוּלָּם שְׁלַחְנָא יָדְךָ וְנָע בְּכָל-אֲשֶׁר-לוֹ**
 벗겨냄 3/2

검증을 요구하는 사탄의 첫 번째 도발: 2×벗겨냄(소유/집)

1:11b **אִם-לֹא עַל-פְּנֵיךָ יִבְרַכְךָ**

사탄의 첫 번째 예상: 복이 없음 ⇒ 경건도 없음

2:4b **עוֹר בְּעַד-עוֹר וְכָל אֲשֶׁר לְאִישׁ יִתֵּן בְּעַד נַפְשׁוֹ**
 경건 ← 복(1×둘러쌌/공정)

2:5a **אוּלָּם שְׁלַחְנָא יָדְךָ וְנָע אֶל-עַצְמוֹ וְאֶל-בְּשָׂרוֹ**
 벗겨냄 1

검증을 요구하는 사탄의 두 번째 도발: 1×벗겨냄(피부)

2:5b **אִם-לֹא אֶל-פְּנֵיךָ יִבְרַכְךָ**

사탄의 두 번째 예상: 복이 없음 ⇒ 경건도 없음

사탄의 질문에 대해 산문부의 유명한 욱의 말인 1장 21절과 2장 10절은 이미 사탄의 예상과는 달리 욱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경외의 태도를 잃지 않고 있다는 대답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³³ 그런데

33 사탄의 문제 제기 에 대해서 이미 산문부에서 확인되는 욱의 대답과 태도(1:21; 2:10)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유효한 대답이다. 의인의 고난 문제가 욱기를 마무리하는 산문부

도 사탄의 질문은 그의 존재 자체가 언급되지 않는 운문부에서 다시 반복된다. 비록 인간의 고난에 관한 욱과 욱의 친구들 간 대화와 욱의 독백이 사탄의 질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으나, 산문부에서 사탄의 질문을 받은 독자는 ‘그 고난 가운데서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욱은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여전히 품게 된다. 그것은 특히 욱의 태도가 산문부의 명확한 대답과 일치하지 않음을 인지할 때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1장 11b절과 2장 5b절에서 사탄이 예상한바, 욱이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할 것인지를 거기서 다시 확인받고자 한다. 게다가 본문을 면밀히 분석하는 독자는 거기서 둘러쌈의 모티브가 눈에 띄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거나 단순히 아이러니적 의미³⁴로 사용되며, 산문부와 의도적 대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파악하게 되고, 그 구성적 의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둘러쌈의 모티브를 욱의 탄원으로 구성된 독백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위의 결론을 토대로 볼 때, 이제 주목할 본문은 3장 23절과 10장 11절이다. 운문부가 시작되는 3장에서 특히 23절은 명백하게 둘러쌈의 모티브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부정적으로 사용되며, 10장 11절 역시도 긍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이 두 본문은 욱기의 산문부와 운문부가 서로 질문과 대답의 큰 틀에서 구성되었다고 할 때, 질문에 해당하는 1장 10, 11절과 대답에 해당하는 19장 6절 이하를 연결해 주는 것으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장 6절 이하는 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인 ‘세 겹으로 둘러쌈’의 모티브가 정확하게 반대의 의미 속

에서 욱이 두 배로 보상받는 것으로 결론짓는 것 또한 적절한 신학적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단지 순쉬운 해결책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할 수는 없지만, 이 논문은 욱기의 운문부에서 명확히 확인되는데, 인간의 고난 문제에 대한 치열한 고민에 더 초점을 두고, 산문부의 이상적인 욱의 대답과 태도를 애써 모르는 체하며, 조금은 궁색하게 논의를 이어가고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34 예를 들면, 19:20.

에서 벗겨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욥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는 사탄의 의심에 대한 좋은 대답이 될 것이다.

5. 3:23

욥의 하나님 경외와 관련한 둘러쌈의 모티브는 운분부에서도 발견된다. 그 모티브는 먼저 욥의 탄식이 시작되는 3장에서 발견된다. 23절은 마치 1, 2장의 사탄의 수사적 질문에 대답이라도 하는 듯 동일한 모티브를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하며, 욥의 하나님을 향한 도전적 의문을 표현하기 시작한다. 특히 3장의 ‘하나님에게 둘러싸임’은 이제 욥이 스펙트럼처럼 진술할 그의 고난을 예고하는 시각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23a אֲשֶׁר־יִדְרֹכּוּ נִסְתָּרָה לְנֹכַח (레게베르 아셰르-다르코 니스타라/그의 길이 숨겨진 사내에게)

23b וַיִּסָּךְ אֱלֹהִים בְּעָרְוֹ (바야체크 엘로아흐 바아도/그리고 하나님이 둘러싸고 있는 [사내에게])

[20a לָמָּה יִתֵּן לְעֵמֶל אוֹר (라마 일텐 레아멜 오르/왜 고난 겪는 자에게 빛을 주시는가?)]³⁵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1장 10a절에 사용된 שׁוּכַּ/סוּךְ (수크) 동사의 히필형과 전치사 בְּעָרַ (바아드)가 그대로 다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³⁶ 욥기 3장의 욥의 탄식은 저주(קָלַל pi./킬렐), 파멸(אַבַּד/아바드), 어둠(צְלָמוֹת/חֹשֶׁךְ/찰마베트/호체크), 죽음(מוֹת/무트), 고난(עָמַל/아말) 등의

35 한글 번역에 이 구절이 추가된 것은 문백상 20a절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36 Fohrer, *Hiob*, 126 참조.

화(禍)로 가득하다는 특징이 있다. 거기서 씬(𐎎𐎗/누호)과 복(福)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둘러쌈의 모티브가 사용된다면, 이것은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독자의 시각에서는 확실히, 1장에서 사탄이 수사적 질문을 통해 주장한바, 하나님의 둘러싸 보호하는 것이 욥의 하나님 경외의 이유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나님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 욥의 실제 상황인데, 그것이 과연 사탄의 말처럼 긍정적 상황인지를 3장은 독자 스스로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독자는 그 둘 사이에 분명한 의미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된다.³⁷ 사탄의 주장대로 1장 10a절에서의 하나님의 세 겹의 둘러싸 보호함은 긍정적 의미이며 충분히 욥 경건의 이유가 될 수 있겠으나, '사내' 욥에게 서술된 같은 모티브³⁸를 욥뿐만 아니라, 독자도 부정적 의미인 '하나님의 가두심'³⁹으로만 인식하게 된다. 비테도 시편 139편 5절에서 시인이 표현하는바, 감사와 기이함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이 여기서는 단지 무거운 압박으로만 드러난다고 보았다.⁴⁰ 또한 이사야 40장 27절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23a절에 언급된 '길의 감추어짐'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면, 3장 23절은 명백히 1장 10a절의 반대적 의미로 사용된 것이며, 그러므로 여기 욥의 탄식은 1장 10a절 사탄의 의심을 아이러니적으로 비틀어 표현한 것이란 하틀리의 주장 또한 주목할 만하다.⁴¹ 하

37 안근조, 『하나님의 지혜 초청과 욥의 깨달음: 욥기의 지혜코드』, 48 참조.

38 여기서 1/2장과 같이 세 겹의 둘러싸 보호함에 관해서 말한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3장의 표현을 반드시 1/2장과 관련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다. 욥이 천상 회의에서의 결정에 대해서 모르듯 3장은 단순히 욥의 삶 자체에 초점을 둔 개념일 뿐이지, 그것이 아직 명확히 구분된 개념, 즉 그 자신과 그의 집과 그의 재산에 대한 둘러쌈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39 Horst, *Hiob*, 55.

40 Witte, *Das Buch Hiob*, 127; 권지성, 『특강 욥기: 고통, 정의, 아름다움에 대한 신의 드라마』 (서울: IVP, 2019), 61 참조.

41 Hartley, *The Book of Job*, 99.

나님의 둘러쌈은 이제 여기서 욥의 고난의 상징으로 사용된다.⁴²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장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그로스(Groß)는 “여기서 감각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동시에 감정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진 것이기도 하다”고 보았다.⁴³ 왜냐하면 여기의 이 차단은 “그에게 모든 삶의 가능성을 끊어버리기 위한 것”⁴⁴으로만 느껴지기 때문이다. 전치사 **בְּעֵרָו** (바아드)와 사용되는 **הָיָס/הָכַסָּ** (수크/사카크 = **הָיָס/הָכַסָּ**/수크/사카크) 히필형은 ‘담으로 둘러쌈’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날 모든 도주로를 막고 있는, 넘을 수 없는 차단기로 작용한다.⁴⁵ 하틀리는 하나님의 이 행동을 19장 8절과 관련하여 하나님 자신에게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으로 해석한다.⁴⁶ 하나님의 가두심과 길의 감추어짐의 두 그림은 19장 6, 8, 12절의 그림과 연관된다. 이제 3장 23 절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대답: 욥의 독백]	[욥의 하나님에 대한 도발]
3:23a לִנְבֹר אֲשֶׁר־דָּרְכוּ נִסְתָּרָה	길의 감추어짐(도대체 어떻게 된 것?)
3:23b וַיִּסַּךְ אֱלֹהֵי בְעֵרָו	하나님의 가두심(도대체 어떻게 된 것?)
둘러쌈 1/2/3	부정

42 Witte, *Das Buch Hiob*, 127. “욥은 이제 확실히 그의 불행의 원인자로 하나님을 지칭한다. 사탄의 말에서 욥의 행복을 표현하던 … 하나님의 둘러쌈이…(1:10 참조), 이제는 단지 그의 고난의 상징으로 나타난다(19:8 참조).”

43 Groß, *Ijob*, 22.

44 Hesse, *Hiob*, 49. 류사라는 이것을 정반대로 욥의 죽음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보기도 한다. 그녀의 다른 관점을 류사라, ““하나님에게 둘러싸여”(욥 3:23)의 이중적 레테르(letter)”, 「구약논단」 86집 (2022년 12월), 89에서 참조하라.

45 Hartley, *The Book of Job*, 99 참조.

46 윗글.

3장 23절은 운문부에서 이제 사탄의 문제 제기가 전혀 그렇지 않음을 말하기 시작하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6. 10:11

욥기 10장 9절 이하는 욥의 독백 중에서도 인간 창조의 그림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예이다. 욥은 독특한 그림을 통해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개인 차원으로 이끌며, 자신과 창조주의 긴밀한 관계성 속에서 서술한다.⁴⁷ 그런데 이 서술은 독특한 맥락에 담겨있다. 그것은 자신의 의로움(7절)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도대체 왜 그렇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욥의 특수 상황(2-6절)이다. 특히 11절은 인간의 몸이 네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히는데, 그것은 피부와 살과 뼈와 힘줄이다.

- 11 עֹר וּבָשָׂר תְּלַבֵּשְׁנִי וּבְעֲצָמוֹת וְגִידִים תִּסְכְּכֵנִי (오르 우바사르 탈 비쉐니 우바아차모트 베기딤 테숙케니/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엮어 짜셨습니다.)

욥이 서술하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그림은 먼저 하나님이 피부와 살을 마치 옷을 입히듯 입히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뼈와 힘줄로 그를 엮어 짜셨다는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행동을 욥은 자신의 탄식 상황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그래서 불만인 자신의 태도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⁴⁸

47 Witte, *Das Buch Hiob*, 207.

48 이 구절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본다면, 이것은 아이러니적 요소를 지니다. 그러나 이미 욥

여기서 קָצַף(사카크) 동사는 קָצַף₂ 포렐형으로 ‘~을 엮어 짜다’란 의미⁴⁹를 지니지만, 이것을 קָצַף₁로 보면 ‘~을 보호하듯 덮다’의 의미⁵⁰가 된다. 여기서 קָצַף 동사를 반드시 קָצַף₁로 볼 필요는 없지만, 그것은 다분히 이 구절을 3장 23절 및 1장 10a절로 이끌어 가기에 충분하다. 또한 피부가 몸의 네 구성요소 중의 하나라는 사실은 2장 5a절에 명시된 사탄의 제안, 즉 ‘뼈와 살을 치라’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를 단번에 깨닫게 한다. 그리고 이 그림은 곧바로 독자의 시선을 19장 20, 26절로 향하게 한다. 이제 10장 11절을 우리 논의의 맥락 속에서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대답: 욥의 독백]

[욥의 하나님에 대한 도발]

10:11 עֹר וּבָשָׂר תִּלְבְּשֵׁנִי וּבְעֵצָמוֹת וְגִידִים תִּסְכְּכֵנִי

둘러쌌 1

옷을 입히심/엮어 짜심[보호하여 덮으심]

공정

그러나 하나님의 행동 이해 불가 ⇒ 강한 탄식과 불만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둘러쌌의 모티브가 긍정적으로 서술되고, 그것이 하나님과 욥의 친밀성을 분명하게 증명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욥의 복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욥은 자신의 창조주인 하나님과 자신의 친밀성을 근거로 하나님을 향해 항변한다. 그러나 그 항변이 사탄이 예상하듯 하나님을 향한 저주로 귀결되는가? 그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본문인 19장 6-27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 불만의 상황이 앞과 뒤에 서술되고 있으므로, 이것을 아이러니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다.

49 Gesenius¹⁸, 886.

50 윗글.

7. 욥 19:6-20, 25-27⁵¹

욥기 1장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는 욥의 실제 삶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욥은 이 대화와 상관 없이 지상에서 자신의 삶을 이어 나갈 뿐이다. 자신에게 쏟아진 고난에 대해서 어떤 이유나 결론도 모른 채 욥은 자기 고난의 상황에 반응하여야 한다. 그런 차원을 바탕으로 고난에 대한 욥의 반응을 살필 수 있으며, 특히 욥이 하나님 경외를 절대로 놓지 않음이 명확히 확인되는 욥기 19장의 말미를 기준으로 그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치 욥기 1장 9-10절의 사탄의 질문과 마치 데칼코마니와 같이 서술되기 때문이다. 욥은 빌닷의 두 번째 말에 대해서 자신의 심정을 아래와 같이 토로하는데, 그것은 사탄이 말한바 욥이 하나님 경외의 까닭으로 제시한 세 겹의 둘러쌈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6 **וְיַעֲוֹבֵנוּ כִּי־אֱלֹהִים עֲוֹתָנִי וּמַצְדִּירֵי עָלַי הַקּוֹיָהּ** (테우-에포 키-엘로 아흐 이베타니 우메추도 알라이 힘키프/너희들은 이제 알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당하게 행하신 것을 그리고 그의 수렴 그물망이 나를 두름(포위하였음)을.)
- 7 **הֲאֶעֱשֶׂה חֲמָס וְלֹא אֶעֱנֶה אֲשֶׁנֶּה וְאִין מִשְׁפָּט** (헨 에츠아크 하마스 벨로 에이네 아샤마아 베에인 미쉐파트/'보십시오, [그것은] 폭력 행위입니다!'라고 내가 소리를 치지만 대답을 들을 수 없고, 내가 도움을 청하지만 정의가 있지 않다.)

51 26절에 대한 분석이 없어 매우 아쉽지만, 욥 19장에 대한 탁월한 분석을 김준, “욥의 고엘, 천상의 중재자, 그리고 상상력(욥기 19:25)”, 『구약논단』 67집 (2018년 3월), 46-75에서 참조하라.

- 8 אֲרָחִי נָדַר וְלֹא אֶעְבֹּר וְעַל נְתִיבוֹתַי חֲשֵׁךְ יִשָּׂם (오르히 가다르 벨로 에에보르 베알 네티보타이 호셰크 야셈/나의 길을 그가 담으로 막으셔서 내가 넘어갈 수 없고, 나의 길에 그가 어둠을 두신다.)
- 9 כְּבוֹדִי מֵעַלֵּי הַפְּשִׁיט וַיִּסַּר עֲטֹרַת רֹאשִׁי (케보디 메알라이 히페쉬트 바야사르 아테레트 로쉬/나의 영광[의 옷?]⁵²을 그가 나로부터 벗기시고, 내 머리의 관을 벗기셨다.)
- 10 יִהְיֶנִּי כָּבִיב וְאֶלֶךְ וַיִּסַּע כְּעֵץ תִּקְוֹתַי (이트체니 사비브 바엘라크 바야사아 카에츠 티크바티/그가 나를 사방으로 둘러 찢어 내리시니 내가 [죽음을 향해] 간다. 그가 나무와 같이 나의 희망을 뽑아버리셨다.)
- 11 וַיִּיחַר עָלַי אִפּוֹ וַיִּחְשְׁבֵנִי לוֹ כְּצִרְיֹו (바야하르 알라이 앞포 바야호쉐 베니 로 케차라브/그가 나에게 대한 그의 진노를 불태우셨고, 나를 그의 대적자 같이 생각하셨다.)
- 12a וַיִּחַר וַיִּבְאוּ גְדוּדָיו וַיִּסְלְוּ עָלַי הַרְבֵּם (야하드 야보부 게두다브 바야 솔루 알라이 다르캄/힘을 합쳐 그의 군대들이 오고, 그들의 길을[진격로를] 나를 대항해 펼쳤다.)
- 12b וַיִּיחַנוּ כָּבִיב לְאַהֲלֵי (바야하누 사비브 레오허리/그가 나의 장막을 둘러 싸서 진을 치셨다.)

6-12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둘러쌌’의 모티브가 보호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공격적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6b절에서 읊은 히필형 ‘두르다’, 그것도 수렵 그물망(מְצוּד/마초드)으로 포위함은 우리 논의의 핵심 동사인 ‘전치사 בעד(바아드)와 사용되는 סָכַף סָכַף(수크/사카크 = חָשַׁף סָכַף/수크/사카크) 히필형은 아니지만, ‘둘러쌌’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읊은 하나님의 이 행위를 부당한 폭력 행위(חֲמָס)로 고발한다. 그 고발은 아마도 읊의 친구들에게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로부터 어떤 대답도, 어떤 도움도 얻지 못한다. 특히 읊 주변

52 ‘영광’, ‘존귀’란 뜻의 כְּבוֹד(카보드)만 위치하고 있으나 동사로 עָטַט(파샤트) 히필형이 사용되고 있고, עֲטֹרַת רֹאשִׁי(아테레트 로쉬/내 머리의 관)가 추가로 언급되므로 그것을 상징하는 어떤 옷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Gesenius¹⁸, 524를 참조하라.

의 모든 관계자로부터의 외면과 소외는 13절 이하에서 더 자세하게 서술되므로 아래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8절에 서술된 ‘길을 담으로 막아 차단함’과 ‘길에 어둠을 두심’은 시편 139편과 연결되는데, 거기서 긍정적 의미로 서술된 ‘시인의 앞뒤를 둘러싸심’(כָּסָה/추르)이 여기 읍의 상황과 극명하게 대비되고, 거기서는 시인을 덮은 흑암과 시인을 두른 빛이 밤이 되는 상황(11절) 가운데서도 야웨의 보호하심(12절)이 있지만, 여기 읍에게는 보호가 아닌, 공격적 상황으로 적용된다. 계속해서 9절의 영광(의 옷)과 머리의 관을 벗기심과 10절의 ‘찢어 내리심’(נָתַץ/나타츠)⁵³은 모욕과 죽음과 파멸의 의미로, 특별히 ‘둘러싸 보호함’의 정반대 이미지를 형성할 뿐이다. 특히 נָתַץ(나타츠)가 כָּסָה(싸비브)와 함께 사용되어, 이것은 읍을 감싸고 있는 것, 즉 무엇보다도 그의 재산 및 그의 영광을 상징하는 모든 것을 바닥으로 끌어 내려 파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2a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읍을 향해 출정함과 12b절에 서술된 읍의 장막을 둘러 진치는 모습은 역시 ‘둘러쌌’의 이미지가 공격적인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며, 11절의 서술과 같이 읍 자신은 현재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며, 대적일 뿐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12절에 다시 반복되는 כָּסָה(싸비브)의 사용으로 이 본문은 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둘러싸는 행동과 무관하지 않으며, 그것이 1장의 둘러쌌의 모티브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19장 6-12절에서의 하나님의 행동과 그것에 대한 읍의 인식이 ‘둘러쌌’에서 ‘찢어 벗기심’ 그리고 다시 ‘둘러쌌’으로 전개되는데, 이것은 ‘둘러쌌’ = ‘보호하심’이란 등식에 대한 무언의 문제 제기

53 נָתַץ(나타츠)는 주로 집, 성읍, 담 등을 목적으로 취하여 ‘헐다, 무너뜨리다’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것이 특별히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파멸의 의미로 사용된다. 이에 관해 시 52:7[한, 5절]과 Gesenius¹⁸, 864를 참조하라.

이며, 그것을 ‘둘러쌌다’와 ‘찢어 벗기심’의 이미지 반복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동일한 용어의 사용은 없으나, 이것은 분명 3장 23절을 그 매개로 하여 1장 10a절로 연결되고 있다. 특히 벗겨냄의 행위는 이후에도 명백하게 언급될 중요한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1장 9절 이하에 언급되는 보호라는 의미의 둘러쌌다의 반대적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적대적 공격 의미의 ‘둘러쌌다’이 여기서 사용되고 있음은 사탄이 한 말인 ‘둘러 보호하심’에 대한 강한 의심을 불러오며, 그 둘러쌌다 보호가 아니라 현재 욱의 상황에서 공격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임을 강변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제 13절 이하는 또 다른 양상을 서술하고 있다. 욱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이 멀어지며, 욱을 마치 외인 대하듯 한다. 여기 언급되는 사람들의 자리는 집 밖에서 집 안으로 그리고 다시 집 안에서 집 밖으로 변화된다. 먼저 집 밖의 사람이 언급되는데, 그의 형제들⁵⁴,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그를 신뢰하는 사람들이다. 이어서 집 안의 사람들이 언급되는데, [집에 거주하는] 외인들, 여자 종들, 남자 종들 그리고 그의 아내다. 그리고 다시 집 밖의 사람들이 언급되는데,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들, 그를 따르던 [공동체의] 아이들, 그를 사랑하던 모든 이들이 언급된다. 이것은 욱의 집의 붕괴와 그의 모든 사회적 관계가 허물어짐을 서술한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20절에서 욱 자신 건강상의 문제로 전이된다.

13 אָחִי מֵעַל הַרְחִיק וְיָדַעִי אֶת־זָרוֹ מִמֶּנִּי (아하이 메알라이 히르히크 베요드아이 아크-자루 밌메니/나의 형제가 나를⁵⁵ 멀리하고, 나를 아는 사람들[신뢰하던 친구들]이 당황스럽게도 [나를 모르는 듯] 나에게로부터

54 아마도 가까운 혈족을 의미함.

55 목적어가 מעל (메알)과 함께 오는 것에 관해, Gesenius¹⁸, 1238을 참고하라.

돌아선다.⁵⁶⁾

14 **קָדְלוֹ קְרוֹבֵי וּמִיָּעַי שְׂכַחוּנִי** (하들루 케로바이 우메유다아이 쉘케후 니/나의 친척들[이웃들]이 [나를 돕기 위해] 나타나지 않고, 나를 신뢰하던 사람들[아는 사람들]이 나를 잊었다.)

15a **גָּרִי בֵּיתִי וְאִמָּהֲתִי לְזָר תַּחֲשָׁבֵנִי** (가레 베티 베암호타이 레자르 타흐 쉘부니/내 집에 머무는 외인과 나의 여종들이 나를 낯선 사람으로 대한다.)

15b **נִכְרִי הָיִיתִי בְּעֵינֵיהֶם** (노크리 하이티 베에이네이헬/내가 그들의 눈에 다른 민족의 사람이 되었다.)

16 **לְעַבְדֵי קְרָאחִי וְלֹא יַעֲנֶנּוּ בְּמוֹפֵי אֲתַחְנֹן-לוֹ** (레아브디 카라티 벨로 야아네 베모-피 에트한넨-로/나의 종을 내가 부르나, 그가 대답하지 않으며, 내 입으로 내가 그에게 긍휼을 간청한다.)

17a **רוּחִי זָרָה לְאִשְׁתִּי** (루히 자라 레이쉐티/나의 숨결이 나의 아내에게[조차] 역겹게⁵⁷ 되었고.)

17b **וַחֲנַתִּי לְבָנֵי בְטָנִי** (베한노티 리베네 비트니/나는 나의 모태의 아들들[나의 혈육인 형제들]⁵⁸에게[까지] 냄새를 피웠다.)

18 **גַּם-עֵוִילִים מָאֲסוּ בִּי אֶקְוָמָה וַיְדַבְּרוּ-בִּי** (감-아빌림 마이쑤 비 아이 쿠마 바에다브루-비/아이들조차도 나를 경멸하였고, 내가 [의지적으로]⁵⁹ 일어나면 나에게 그들이 말했다[조롱했다].)

19 **כָּל-מַתִּי סוּדֵי וְזֶה-אֶהְבֵּתִי נְהַפְכוּ-בִּי** (티아부니 콜-메테 소디 베제-아하브티 네호페쿠-비/내가 신뢰하는 모임[연합,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혐오하였고, 여기⁶⁰ 나의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나를 대항해서 돌아섰다.)

56 **זָרָה**(주르)의 관해, Gesenius¹⁸, 298을 참고하라.

57 이것은 ‘낯설게 되다’ 혹은 ‘역겨워하다’로 번역이 가능한데, 이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이 ‘낯설게 됨’이나, 특히 그의 아내로부터의 소외는 단순히 낯선 것 이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 Gesenius¹⁸, 298과 Hans Strauß, *Hiob* (BK XVI/2₁;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5), 4, 13을 참조하라.

58 ‘나의 모태의 아들들’은 당연히 옴의 형제들로 볼 수 있다. 사 49:15의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은 자식의 의미로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옴의 형제들로 보는 것이 맥락에 부합한다. 비테의 다른 견해를 Witte, *Das Buch Hiobs*, 304에서 참조하라.

59 현재 몸져누운 자리에서 어렵게 일어난다는 의미로 보임.

60 지시대명사 **זֶה**(제/이것)를 ‘여기’로 번역하였음.

20 **בְּעוֹרֵי וּבְבָשָׂרֵי דְּבָבָה עֲצָמֵי וְאַתְּ מְלֵטָה בְּעוֹר שָׁנִי** (베오리 우비 브싸리 다브카 아즈미 바에트말레타 베오르 쉰나이/나의 가죽과 나의 살에 내 뼈가 달라붙었고, 나는 내 이의 가죽(잇몸)만 가지고 [이 상황으로부터] 뛰어나왔다.)⁶¹

13-14절에는 먼저 욥의 집에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언급된다. **אַף**(아흐) - **יִדְעָ**(요테아)와 **קָרוֹב**(카로브) - **מֵיִדְעָ**(메유다아) 사이의 평행이 흥미롭다. **אַף**(아흐)는 동거하지 않는 가까운 혈족을 그리고 **קָרוֹב**(카로브)는 혈족이나 먼 친척을 의미할 수 있다. 반면 **יִדְעָ**(요테아)와 **מֵיִדְעָ**(메유다아)는 정확한 의미 구분이 쉽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된 네 동사는 모두 욥이 그들로부터 격리되며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척되고 있음을 명확히 서술한다. 15-17a절은 욥의 집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욥과의 친밀함을 기준으로 멀리서부터 열거하는데, 욥의 집에 머무는 외인, 여자 종들, 남자 종들 그리고 아내가 순서대로 언급된다. 그들이 욥을 대하는 태도는 점층적으로 서술된다. 집 안에서 욥은 먼저 낯선 사람에게 낯선 사람 취급을 당하고, 여종들에게도 낯선 사람으로 취급된다. 낯선 사람을 언급하는 두 단어가 **זָר**(자르)에서 **נֹכְרִי**(노크리)로 변화되는 것도 눈에 띈다.⁶² 또한 남종이 욥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일관된 태도, 즉 자기 고난의 이유에 관한 질문에 도무지 답을 얻을 수 없음과 하나님을 향해 공황을 구하나 역시 응답이 없음(16:20 참조)을 그의 종에게서도 외면당하는 모습을 통해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욥의 소위는 “병든 몸으로

61 **מְלֵטָה** (말라트) 히트파엘형은 ‘~로부터 튀어 나오다’인데, 그로부터 이 구절을 위와 같이 번역하여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다. Gesenius¹⁸, 683을 참고하라.

62 **זָר**(자르)와 **נֹכְרִי**(노크리)의 차이에 대해서, 쨌더(M. Zehnder)는 **זָר**(자르)를 보호를 위해 찾아와 사는 ‘난민’으로 그리고 **נֹכְרִי**(노크리)를 일시적 거주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구분한다. Markus Zehnder, “Fremder (AT),” in: *Das wissenschaftliche Bibellexikon im Internet (WiBiLex)* (<https://bibelwissenschaft.de/stichwort/18557/>).

부터 풍겨 나오는 악취⁶³로 보이는 그의 숨결을 거부하는 아내의 모습에서 절정에 이른다. 17b-19절은 다시 집 밖으로 연결된다. 17b절은 욱의 친형제들을 언급하며 냄새를 풍기는 욱의 심각한 상태를 집 안으로부터 집 밖으로 절묘하게 연결시킨다. 특히 16절의 \aleph_1 (하난) 히트파 엘형 ‘공홀을 간청하다’가 여기서 \aleph_2 (하난) ‘냄새를 피우다’로 사용되는 것은 언어의 유희에 속한다. 그리고 계속하여 언급되는 욱의 관계자들을 통해 욱이 아이들로부터 당하는 경멸과 조롱, 그를 신뢰하던 모임 사람들의 혐오와 배척이 서술된다. 이 모습은 특히 29장 7절 이하와 대비⁶⁴되며, 욱의 상황을 현실성 있게 강조하여 드러낸다.

이제 20절은 매우 특이한 그림을 보여준다. 가죽(피부), 살 그리고 뼈에 대한 그림은 10장 11절의 인간을 구성하는 생물학적 본질로 소개된 네 구성요소 중 세 개를 포함한다. 그리고 사탄의 의심(1:10a)과 제안(2:4b, 5a)과 긴밀한 연관성 안에 놓여 있다. 그 의심과 제안의 결과로 만들어진 욱의 상황이 현재 맥락에서 그의 모든 사회적 관계성이 멀어지는 방향으로 서술되는 데 반해, 욱의 피부와 살이 그의 뼈에 들러붙는 형국은 사탄이 말한 ‘둘러싸 보호함’을 아이러니하게 비꼬는 모습에 불과할 뿐이다. 욱의 뼈에 말라 붙어버린 피부와 살은 사탄의 말대로 아직 벗겨지지 않았지만, 욱의 상태는 그 마지막 시험의 단계를 코 앞에 두고,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삶의 최종적 단계라고 할 수 있다.

25-27절은 욱의 분명한 확신과 기대를 표현한다. 욱의 확신과 기대는 그의 구속자, 즉 그의 하나님이 살아 있으며, 이후 땅 위에 설 것이

63 비테(M. Witte)는 동의하지 않으나, 위에 소개한 \aleph_1 (루아흐)의 가능한 세 의미 중 세 번째가 가장 적절한 해석으로 보인다. 이것은 특히 ‘삶에 지친 자가 자신의 바와 나누는 대화’(Gespräch eines Lebensmüden mit seinem Ba)의 맥락과 일치한다. 이에 관해, Witte, *Das Buch Hiob*, 303을 참조하라.

64 특히 욱이 성문에 이를 때에 그에 대한 반응인 ‘일어섬’과 여기 욱의 ‘일어섬’은 미묘하게 연결되며, 강렬한 대조적 그림을 만들어 낸다.

란 사실이다. 욥의 이 구속자를 그의 살로부터 경험하길 기대한다.

- 25 וַאֲנִי יִרְעָתִי נֹאֲלִי חֵי וְאַחֲרוֹן עַל-עֶפְרָק וְקוֹם
 리 하이 배아하론 알-아파르 야콥/나는 알고 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 있
 음을 그리고 그가 이후 땅[먼지] 위에 설 것을.)
- 26 וְאַחַר עוֹרֵי נִקְפוּ-זֹאת וּמִבְּשָׂרִי אֶחְזָה אֱלֹהִהּ
 후-조트 우뭇베사리 에헤제 엘로아흐/그리고 나의 가죽[피부]이 벗겨진
 후 바로 그때, 나는 내 살로부터⁶⁵ 하나님을 볼 것이다.)
- 27a אֲשֶׁר אֲנִי אֶחְזָה-לִּי וְעֵינַי רָאוּ וְלֹא-רָו
 에이니 라우 베로-자르/그를⁶⁶... 나는 직접 볼 것이다. 나의 눈이 [그를]
 볼 것인데, 어떤 낯선 존재로 [보지] 않을 것이다.)⁶⁷
- 27b כָּלוּ כְלֵי־בִּחְקֵי כָלוּ כְלֵי־בִּחְקֵי
 없어진다[마음이 초조하다].)

25절의 ‘나의 구속자’는 26절의 ‘하나님’과 동일하다. 그 구속자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욥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언제나 성취되 지 않는 기대임이 틀림없지만, 19장에서 하나님은 욥에 대해 매우 공격 적으로 서술된다. 욥에게 있을 모든 보호의 장막을 남겨두지 않고 걷어 버리는 존재로 서술된다. 그럼에도 욥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구속자로

65 וּמִבְּשָׂרִי (뭇베사리의) 전치사 מִן (민)은 일반적으로 מִן שָׂרֵפָה (분리 혹은 박탈격)로 본다. 이에 관해, Gesenius¹⁸, 694와 GK § 119 w 그리고 Witte, *Das Buch Hiob*, 297을 참조하라. 그 결과 이것을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혹은 ‘육체 없이’로 번역한다. 같은 견해를 Horst, *Hiob*, 278; Strauß, *Hiob*, 3; Hesse, *Hiob*, 124, 128을 참고하라. 반면 ‘내 살로부터’ 혹은 ‘여전히 내 살 속에서’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그에 관해 각각 Hartley, *The Book of Job*, 290, 296-297과 Clines, *Job 1-20*, 428, 463-464를 참고하라. 그러나 이 구절을 10:11의 맥락과 연결해서 읽는다면, 피부가 덮고 있는 살이 드러난 상태에서, 즉, ‘내 살로’ 혹은 ‘내 살을 맞댄 상태로’로 번역하여야 한다.

66 관계대명사가 바로 앞의 하나님에게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Strauß, *Hiob*, 5를 참조하라.

67 19장의 이 맥락 안에서 자신이 낯선 사람 취급당한 것에 대한 반대의 감정으로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식할 뿐 아니라, 그 구속자가 땅 위에 서실 것을 기대한다. 땅으로 번역된 **קָפַץ**(아파르)는 죽음의 자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실상 욱의 생명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⁶⁸ 오히려 26절은 욱의 상태를 동사 **קָפַץ**₁(나카프) 피엘형 ‘[가죽을] 벗기다’를 사용하여 표현하는데, 이것은 먼저 6절의 **קָפַץ**₂(나카프) 히필형 ‘[수렵 그물망으로] 포위하다’와 연결되는 듯하지만, 놀랍게도 26a절에서 이 동사는 **עָרַי**(오리)와 함께 사용되어 ‘가죽을 벗기다’란 의미가 된다. 이것은 명백히 사탄이 말한 시험의 모습, 즉 2장 4b절을 연상시킨다. 즉, 26절의 ‘나의 가죽[피부]이 벗겨진 후 바로 그때’는 욱의 죽음의 목전을 암시하며, 6절의 **קָפַץ**₂(나카프) 히필형 ‘[수렵 그물망으로] 포위하다’ 및 2장 4b절과 함께 ‘둘러쌈’과 ‘벗겨냄’ 사이의 미묘한 의미의 상호작용을 만들어 내고 있다. 27절의 **הִיָּבָה**(하자/보다)는 마치 욱을 예언자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는 것처럼 묘사한다. 그러나 욱이 바라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환상은 초월적 세계의 무엇이 아니며, 가장 현실적인 삶의 자리인 고난의 가장 핵심적인 현실, 즉 그의 가죽이 다 벗겨진 죽음의 목전에서 바라보는 환상이다.⁶⁹ 그것도 그의 피부가 다 없어져서 이제는 생명을 보호할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 하나님을 낯선 외인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드러난 살을 맞대어 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콩팥이 녹아 없어질 것같이 간절한 열망으로 표현된다. 이제 19장 6-20, 25-27을 우리의 논의 맥락 속에서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68 이 논의에 대해, Witte, *Das Buch Hiob*, 309를 참조하라.

69 욱의 희망을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가진 것으로 보는 클라인스의 견해를 참조하라. Clines, *Job 1-20*, 458. 하벨(N. C. Habel)도 비록 그것이 그의 죽음 이후라 할지라도 욱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육신으로’ 그것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본다. Habel, *The Book of Job*, 309. 또한 Markus Saur, *Einführung in die alttestamentliche Weisheitsliteratur* (Darmstadt: WGB, 2012), 92; 안근조, 『하나님의 지혜 초청과 욱의 깨달음: 욱기의 지혜코드』, 143을 참고하라.

[대답: 욥의 독백]

[욥의 하나님에 대한 도발]

19:6-12 [둘러쌌 3]/벗겨냄 공격적 의미의 둘러쌌/벗겨냄

19:6 דְּעוֹרֵאִפּוֹ כִּי־אֱלוֹהַּ עֲוֹתָנִי וּמְצוּדוֹ עָלַי הַקִּיף
수렵 그물망으로 포위하심: 둘러쌌/부정

19:7 הֵן אֶצְעֵק הַמָּס וְלֹא אֶעֱנֶה אֲשׁוּעַ וְאִין מִשְׁפָּט
하나님의 폭력/도움, 구원 없음

19:8 אֲרַחֵי גֶדֶר וְלֹא אֶעְבּוֹר וְעַל נְתִיבוֹתַי הַשָּׂדֶה יִשִּׁים
하나님이 길을 막음/길에 어둠을 두심: 둘러쌌/부정

19:9 כְּבוֹדִי מֵעָלַי הִפְשִׁיט וְנִסַּר עֲטָרַת רֹאשִׁי
영광[의 옷]과 머리 관을 벗겨냄

19:10 יִהְצֵנִי סָבִיב וְאֵלֶיךָ וַיִּסַּע כְּעֵץ תִּקְנֹתִי
사방으로 찢어 내림: 벗겨냄/부정

19:11 וַיַּחַר עָלַי אִפּוֹ וַיַּחֲשִׁבְנִי לוֹ כְּצִרְיוֹ
하나님의 진노, 욥을 향한 적대감

19:12a יַחַד יָבֹאוּ גְדוּדָיו וַיִּסְלְדוּ עָלַי הַדְּרָכִים
하나님의 군대 동원과 공격

19:12b וַיַּחֲנוּ סָבִיב לְאַהֲלִי
하나님의 군대의 둘러 진을 치м: 둘러쌌/부정

19:13-20 벗겨냄 (⇔ 둘러쌌 2) 욥의 집 안팎의 인간관계 사슬이
끊어져 버림

19:13 אֲחִי מֵעָלַי הִרְחִיק וַיִּרְעֵי אֶף־זָרוֹ מִמֶּנִּי
집 밖에서 욥을 둘러싼 사람들의 벗겨냄

19:14 חֲדָלוּ קְרוֹבֵי וּמִיָּדַעִי שְׂכַחוּנִי
집 밖에서 욥을 둘러싼 사람들의 벗겨냄

19:15a גָּרִי בֵּיתִי וְאִמְהַתִּי לְזָר תַּחֲשָׁבֵנִי
집 안에서 욥을 둘러싼 사람들의 벗겨냄

19:15b נִכְרִי הָיִיתִי בְּעֵינֵיהֶם
집 안에서 욥을 둘러싼 사람들의 벗겨냄

19:16 לְעַבְדֵי קְרָאתִי וְלֹא יַעֲנֶה בְּמוֹפֵי אֶתְחַנְּנֵה־לוֹ
집 안에서 읊을 둘러싼 사람들의 벗겨냄

19:17a רוּחִי זָרָה לְאִשְׁתִּי
집 가장 안쪽에서 읊을 둘러싼 아내를 벗겨냄

19:17b וְחַנְתִּי לְבַנִּי בְטָנִי
집 밖에서 읊을 둘러싼 사람들의 벗겨냄

19:18 גַּם־עוֹלָיִם מְאַסֶּה בִּי אֶקְוֶה וַיִּדְבְּרוּ־בִּי
집 밖에서 읊을 둘러싼 사람들의 벗겨냄

19:19 תַּעֲבוּנִי כָּל־מַתִּי סוּדֵי וְזֶה־אֶהֱבֵתִי נְהַפְכוּ־בִּי
집 밖에서 읊을 둘러싼 사람들의 벗겨냄

19:20 בְּעוֹרֵי וּבְבִשְׂרֵי דְבָקָה עֲצָמֵי וְאַתְּמַלְטָה בְּעוֹר שְׁנֵי
둘러쌌(1:9b, 10a; 2:4b, 5에 대한 아이러니)/부정

19:25-27 벗겨냄 (⇔ 둘러쌌 1) 읊의 마지막 보호막인
가죽(피부)을 벗겨냄

19:25 וְאַנִּי יִדְעֵתִי נְאֻלִּי חֵי וְאַחֲרוֹן עַל־עַפְרָה יָקוּם
읊의 마지막 소망; 구속자인 하나님 보기를 원함

19:26 וְאַחַר עוֹרֵי נִקְפוּ־זֹאת וּמִבִּשְׂרֵי אֶחָזָה אֱלוֹהַּ
“내 가죽이 벗겨진 후에”: 벗겨냄

19:27a אֲשֶׁר אֲנִי אֶחָזָה־לִּי וְעֵינַי רֹאוּ וְלֹא־זָר
하나님에 대한 환상; 하나님을 외인으로 생각하지 않음

19:27b כָּלוּ כְּלִיתִי בְּחֻקִּי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초조한 기다림
고난 속에서도 여전한 읊의 하나님 경외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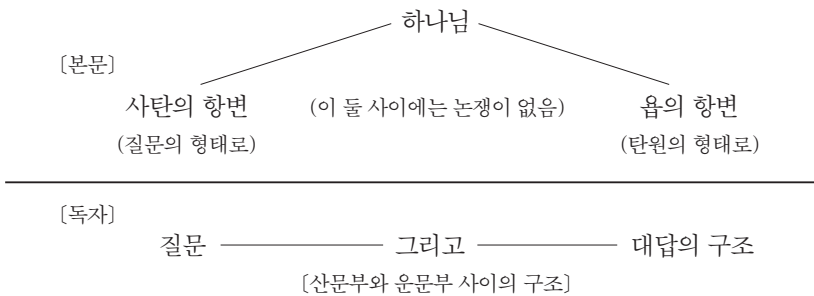
8. 산문부와 운문부 사이의 질문과 대답의 구조

이제 위의 논의를 기초로 욥기의 산문부와 운문부 사이의 독특한 질문과 대답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그런데 이 구조에는 독특하게도 반드시 독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욥기 자체에 설정되어 서술된 구조이지만 그 구조의 의미는 독자의 차원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먼저 사탄의 질문, 즉 사람에게 까닭 없는 하나님 경외가 가능한가란 의심의 질문과 그 의심을 욥에게 적용하여 그를 시험하고자 함이 산문부의 핵심 내용인데, 그것이 운문부에서 대답 된다. 그 질문의 답을 운문부에서 찾을 주체는 독자뿐이다. 왜냐하면 욥기에서 실제 대화와 논쟁의 주역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대답을 발견하지 못하며, 욥 자신도 마찬가지이다. 욥 경건의 참된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는 이런 시험이 자신도 모르게 천상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나, 그와 상관없이 그의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며, 그의 하나님 경외의 자세를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의 변함없는 삶의 태도를 통해 독자들에게 명확한 답을 준다. 그 답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은 자신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구속자로 만나기를 소망할 수 있으며, 그 형식은 탄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본문을 자세히 읽는 독자들이 아래의 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진리다.⁷⁰

슈빈호르스트-쉴베르거(L. Schwienhorst-Schönberger) 역시도 욥기의 대화 부분을 분석하며, 욥의 탄식(3장)이 하나님에 대한 욥의 고발(9:14-35)으로 강화됨을 주목하며, 에필로그에서 하나님이 욥의 의로움

70 슈미트(K. Schmid)는 욥기서의 담론성이 단지 표면상에서만 눈에 띄는 특징이 아니라, 신학적 관점에서도 두드러지는 점이라고 주장한다. Konrad Schmid, *Hiob als biblisches und antikes Buch*, 8; Carol A. Newsom, *The Book of Job: A Contest of Moral Imaginations*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21-31.

을 인정하였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고난 속에 처한 인간의 절박한 탄식을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정당한 태도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그 탄식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이다.⁷¹



이 구조에 의하면 옴의 하나님 경외의 문체는 산문부에서 사탄의 도전적 항변을 시작으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담화적으로 전개된다. 그리고 사탄의 질문은 대답을 요구하며 사라지지 않는다. 반면 운문부에서 옴도 그의 독백에서 하나님을 향해 도전적으로 항변한다. 그런데 이 항변은 사탄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기능한다. 사탄과의 접촉점이 전혀 없는 옴이지만, 그가 고난 속에서 끝없이 답을 찾으며 부르짖는 탄원은 미묘하게도 독자의 차원에서 사탄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해석될 수 있다.

71 Ludger Schwienhorst-Schönberger, “II. Das Buch Ijob”, in: Erich Zenger u. a., *Einführung in das Alte Testament. 9., aktualisierte Auflage herausgegeben von Christian Frevel* (Kohlhammer Studienbücher Theologie 1,1; Stuttgart: Kohlhammer, 2016), 428.

9. 나가는 말

욥기의 주제는 의인의 고난에 대한 논의가 맞지만, 그러나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난의 문제 역시도 핵심적 논의 주제이다.⁷² 어떠한 이유에서건 고난이 닥칠 때, 가령 지난 코로나 팬데믹과 같이 전체 인류를 뒤덮는 고난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사람은 과연 이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⁷³ 사탄에 의해 제기되었던 모든 신앙인을 향한 질문인 ‘이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란 질문은 욥기 전체에서 진지하게 던지는 질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욥기는 의인의 고난이란 협소한 주제만을 다루지 않으며, 아직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한 욥이 보여주는 그의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태도를 통해 독자 스스로 그 답을 발견하게 한다. 이 논문은 욥 삶의 태도를 욥기의 전반부에서만 다루며, 그것도 욥 독백의 일부에서만 다루므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다루지 못한다는 분명한 한계 속에 있으나, 거기서만이라도 찾아낼 수 있는 의미있는 답은 우리 삶에 귀중한 교훈이 된다. 욥의 모습은 표면적으로는 항변자의 독설과도 같이 읽힐 수도 있겠지만, 독자들은 그 욥이 하나님 경외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관찰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사탄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으로 주어진다.⁷⁴

72 고난을 당하는 자가 의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없이 말이다.

73 김선희의 고통에 대한 철학적 성찰은 필자의 이 물음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죄한 자의 고통 앞에서 신정론이나 윤리적, 신학적 설명을 나열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무력하다”는 표현에 동의한다. 이에 관해, 김선희, “부조리한 고통에 관한 철학적 성찰: <욥기>의 부조리 상황과 부조리 철학의 관점을 비교 분석함,” 『철학』 137집 (2018년 11월), 110을 참조하라.

74 이명기의 “갯더미 속 담론”의 개념, 즉 “욥의 이야기는 고통스러운 자신과 하느님을 연결하는 말”이란 정의는 이 마지막 결론과 잘 부합한다. 이명기, “욥의 심정으로 읽는 욥의

참고문헌

- 강철구, “욥의 경건과 축복의 관계(행위화복의 관계)에 대한 논쟁”, 『성경과 신학』 93권 (2020년 4월), 1-23.
- 구자용, 『다윗의 왕위 계승사: 전도서를 드라마화한 삶의 이야기』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2).
- _____, “우리가 항상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데, 악한 것을 또한 받지 못하겠느냐?”(욥 2:10): 욥기가 말하는 신정론에 대한 성서 신학적 고찰”, 『구약논단』 74집 (2019년 12월), 191-220.
- 권지성, 『특강 욥기: 고통, 정의, 아름다움에 대한 신의 드라마』 (서울: IVP, 2019).
- 김선희, “부조리한 고통에 관한 철학적 성찰: <욥기>의 부조리 상황과 부조리 철학의 관점을 비교 분석함”, 『철학』 137집 (2018년 11월), 105-130.
- 김준, “욥의 고엘, 천상의 중재자, 그리고 상상력(욥기 19:25)”, 『구약논단』 67집 (2018년 3월), 46-75.
- 뤼디거 룩스 저/구자용 역, 『이스라엘의 지혜: 언어의 대가, 백성의 지도자, 삶의 원천』 (고양: 한국학술정보(주), 2012).
- 류사라, “하나님에게 둘러싸여”(욥 3:23)의 이중적 레테르(letter)”, 『구약논단』 86집 (2022년 12월), 69-97.
- 안근조, 『지혜말씀으로 읽는 욥기』 (서울: 감은사, 2020).
- _____, 『하나님의 지혜 초청과 욥의 깨달음: 욥기의 지혜코드』 (용인: 킹덤북스, 2012).
- 알렉산더 아킬레스 피셔 저/김정훈, 배희숙, 차준희, 하경택 역, 『구약성서 본문: 역사와 본문비평: 에른스트 뷔르트바인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입문서에 대한 새로운 개정』 (서울: (재)대한성서공회, 2020).
- 이명기, “욥의 심정으로 읽는 욥의 담론 연구: 욥기신학의 재발견을 위하여”, 『가톨릭신학』 32집 (2018년 1월), 5-34.
- 하경택, “욥기 연구사: 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58집 (2015년 12월), 264-301.
- Andersen, Francis I., *Job* (TOTC 14; Nottingham: Inter-Varsity Press, 1976).
- Clines, David J. A., *Job 1-20* (WBC 17; Dallas, Texas: Word Books, 1989).
- Fohrer, Georg, *Das Buch Hiob* (KAT XVI;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 1963).

담론 연구: 욥기신학의 재발견을 위하여,” 『가톨릭신학』 32집 (2018년 1월), 10을 참조하라.

- Gesenius, Wilhelm, *Hebräische Grammatik völlig umgearbeitet von E. Kautzsch* (GK; Hildesheim u. a.: Georg Olms Verlag, 1991).
- _____,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Handwörterbuch über das Alte Testament* (Gesenius¹⁸; Herdelberg u. a.: Springer, 2013).
- Groß, Heinrich, *Ijob* (NEB 13; Würzburg: Echter Verlag, 1986).
- Habel, Norman C., *The Book of Job* (The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5).
- Hartley, John E., *The Book of Job*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88).
- Heckl, Raik, *Hiob – vom Gottesfürchtigen zum Repräsentanten Israels: Studien zur Buchwerdung des Hiobbuches und zu seinen Quellen* (FAT 70; Tübingen: Mohr Siebeck, 2010).
- Hesse, Franz, *Hiob* (ZBK 14;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78).
- Horst, Friedrich, *Hiob* (BK XVI/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8).
- Jepsen, Alfred, *Das Buch Hiob und seine Deutung* (Arbeiten zur Theologie 1. Reihe Heft 14; Stuttgart: Calwer Verlag, 1963).
- Lux, Rüdiger, *Hiob: Im Räderwerk des Bösen* (Biblische Gestalten 25;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12).
- Newsom, Carol A., *The Book of Job: A Contest of Moral Imaginations*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Oorschot, Jan van “Tendenzen der Hiobforschung”, *Theologische Rundschau* 60 (1995), 351-388.
- Pope, Marvin H., *Job*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65).
- Saur, Markus, *Einführung in die alttestamentliche Weisheitsliteratur* (Darmstadt: WGB, 2012).
- Schmid, Konrad, *Hiob als biblisches und antikes Buch: Historische und intellektuelle Kontexte seiner Theologie* (Stuttgarter Bibelstudien 219;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2010).
- Schwienhorst-Schönberger, Ludger, “II. Das Buch Ijob”, in: Erich Zenger u. a.,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9., aktualisierte Auflage herausgegeben von Christian Frevel* (Kohlhammer Studienbücher Theologie 1,1; Stuttgart: Kohlhammer, 2016), 417-430.
- Seebass, Horst, “**נָפֵאֵס** nāpēs”, *ThWAT* (1986), 531-555.
- Strauß, Hans, *Hiob* (BK XVI/2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5).

Syring, Wolf-Dieter, *Hiob und sein Anwalt: Die Prosatexte des Hiobbuches und ihre Rolle in seiner Redaktions- und Rezeptionsgeschichte* (BZAW 336;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4).

Witte, Markus, *Das Buch Hiob* (ATD 13;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21).

Zehnder, Markus, “Fremder (AT)”, in: *Das wissenschaftliche Bibellexikon im Internet(WiBiLex)* (<https://bibelwissenschaft.de/stichwort/18557/>).

검색어

까닭 없는 하나님 경외, 질문과 응답의 구조, 세 겹의 둘러쌈, 독자반응비평,
옅기 산문부와 운문부의 연관성

[ABSTRACT]

**Satans Frage und Hiobs Antwort auf die grundlose
Furcht vor Gott: Ein Vergleich von Hiob 1,9ff und
19,6-20. 25-27**

Cha-Yong Ku
Juan International University

Die Frage nach der Gottesfurcht des Menschen gehört eigentlich zu einem von mehreren Hauptthemen der alttestamentlichen Weisheitsliteratur, das tatsächlich unmittelbar mit der menschlichen Erfahrung verbunden ist. Das Buch Hiob behandelt dieses Thema auf besonders realistische Weise, nämlich in Bezug auf Glück und Unglück aller Menschen, unabhängig davon, ob es sich um einen Gerechten oder einen Ungerechten handelt. Hiobs berühmte Aussage an seine Frau (2,10aβγ) steht in Verbindung mit dieser zweiseitigen Lebenslage. Der Satan setzt sich mit Gott über die Frömmigkeit Hiobs auseinander. Er stellt das unerschütterliche Vertrauen Jahwes auf Hiob subtil in Frage (1,9b). Er behauptet, dass sich Hiobs Frömmigkeit nur auf einen Aspekt dieser zweiseitigen menschlichen Lebenslage beziehen würde. Aus seiner Sicht fürchtet Hiob Gott nur auf sein Glück beziehend, das heißt, aufgrund eines dreifachen Umschließens zum Schutz durch Jahwe: um ihn selbst, sein Haus und seinen Besitz (1,10a). Und er fordert Jahwe auf, Hiob auf die Probe zu stellen, ob er immer noch seine Frömmigkeit bewahren würde, obwohl er dieses dreifache Umschließen zum Schutz verlieren sollte. So leidet Hiob ohne Kenntnis von der Abmachung

www.kci.go.kr

zwischen Gott und dem Satan unter seinem Unglück. Derselbe Diskurs über Hiobs Frömmigkeit setzt sich im poetischen Teil zwischen Hiob und seinen Freunden fort. In diesem Aufsatz jedoch werden ausgewählte Stellen von Hiobs Monolog betrachtet. Besonders wird 19,6ff zur Aussage Satans in 1,9b.10a und 2,4b.5a zum Vergleich herangezogen. Ein deutlicher Kontrast wird nämlich dazwischen gebildet wie eine Décalcomanie. Hiobs Antwort auf die zweite Rede Bildads erweist das erstaunliche Abreißen des dreifachen Umschließens Gottes, das der Satan als Grund für die Gottesfurcht Hiobs angibt. Trotzdem scheint Hiob inmitten seines Leidens immer noch Gott zu fürchten, als ob er sich gegen die Zweifel des Satans beweist. Daher ist eine Frage- und Antwortstruktur denkbar. Diese Struktur wird nicht nur inhaltlich, sondern auch mit der Verkettung des Umschließungsmotives offensichtlich. Dieses Motiv aber wird in beiden Stellen auffallend unterschiedlich angewendet. Der Satan sieht es im prosaischen Teil als eine schützende Aktivität Gottes, aber Hiob interpretiert dasselbe in dem poetischen Teil nur als eine Absperrung Gottes. Diese Stimmung beginnt im poetischen Teil von 3,23 und bleibt weiter unverändert, schließlich erreicht sie in 19,6ff ihren Höhepunkt. Dort hofft Hiob mit einem beharrenden Anschauen an seinen Erlöser, ihn in sein Fleisch zu empfangen. Dabei wird die folgende Frage in Betracht gezogen: Was kann der Mensch inmitten seines Leidens überhaupt tun? Es gibt eigentlich keinen direkten Hinweis auf den Zusammenhang zwischen Gottesfurcht und Leid, dennoch versucht Hiob ständig, Gott beharrend zu eruieren und den Sinn seines Leidens zu begreifen, unabhängig davon, ob er den positiv oder negativ bewertet.

key words

die grundlose Gottesfurcht, die Frage-Antwort-Struktur,
die dreifache Umschließung, die Rezeptionsästhetik,
das Verhältnis von Prosa und Dichtung im Buch Hiob

투고일 : 2024년 04월 13일

심사일 : 2024년 04월 28일

게재 확정일 : 2024년 05월 07일

www.kci.go.kr